

복력 까먹지 않으려면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써야

한산사 주지 석천 스님



석천 스님은... 황해도 웅진에서 태어나 동화사에서 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화사에서 9하안거를 성만하고 김홍사에서 서암스님을 모시고 정진하는 등, 전국의 선원에 방부를 들어 정진하다가 제주도에서 토굴생활을 하기도 했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한산도를 찾아가 한산사를 세우고 기도 정진하다가 해상법당을 건조해 기도와 전법도량으로 삼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가 한산사.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을 꼽자면, 한산도까지 가는 길이다. 10년 전에는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개통되지 않았었다. 지금은 파주에서 출발하여 통영까지 4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 국토의 북쪽 끝 도시에서 남쪽 끝 도시까지 4시간 반이란다. 좋아진 길에 감탄하면서도 좁은 국토가 애처롭다. 거제에서 혹은 통영에서 한산도까지 가는 배가 한 시간 마다 있고 차도 신고 간다.

가장 변하지 않은 것은 뭐가? 통영 앞바다, 한려수도 국립공원의 경치는 변함이 없다. 도시와 마을들이 변하긴 했어도 푸른 바다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한산사에 도착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정하고 부지런한 석천(石泉, 84) 스님은 팔수의 고령에도 바다처럼 그대로라는 사실이 기뻐했다.

“다 늙은 사람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정정하신데요.”
“그렇게 보여요? 고맙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한산사는 한산도와 연결된 추봉도 산허리에 위치해 사시사철 눈 시린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석천 스님의 손은 늘 거칠다. 22년 전 바람하나 메고 찾아 온 한산사에서 하루도 일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겠다는 원력으로 기도하며 빈터에 도량을 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육지에는 한산사, 바다에는 해상법당을 띄웠다. 배안에 관세음보살님, 용왕님, 남순동자님을 모시고 방상법회나 용왕제 수륙제 등, 기도를 하는 해상법당 보광호와 보현호등, 산에도 절이 있고 물위에도 법당이 있으니 그야말로 전천후 범당에서 정진하는 석천스님은 늘 바쁘다. 특별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그저 혼자 조용히 참선하면서 지내려고 했었어요. 혼자 기도를 하다가 포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에 해상법당을 고안해 냈습니다. 종교에서 기도가 없을 수 없고, 이왕 기도를 하려면 좋은 여건 속에 진심으로 기도 정진을 결심했습니다. 바다와 관련한 기도나 법회 의식을 바다 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해상법당이 불자들에게 환희심과 신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셈이죠.”

직접 배를 운전하며 법회를 주관 하는 석천 스님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불자들을 만난다. 한 때 1년에 5만 명 이상 찾아 온 해상법당이니, 그간 스님이 만난 불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이 간다. 자연스럽게 많은 불자들과 대화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스님은 오늘날 불자들의 의식 수준과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을 얼마나 이해하며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

“요즘 불자들은 훌륭한 불자님도 많지만 불교를 잘못 인식하는 불자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안경을 벗어 창상에 내려놓은 석천 스님은 조용하

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따듯하면서도 따뜻한 부처님 말씀을 아주 쉽게 예시해가면서 말씀하신다. 요약하면 이렇다.

여기 찾아 온 불자들은 다 바램과 목적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으려고 온 정성을 다하여 용왕, 방생 기도 하러 오신 불자들이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일론 대담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기도란 지극한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불보살님의 명호를 반복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정말 기도의 영험과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감하게 되고 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자들은 대개 업장소멸 하려고 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업장이란 일상생활의 버릇(습관)이며 현재 살아가면서 습관과 과거의 살던 버릇이 포함됩니다. 그 버릇이 다음 생애도 이어집니다. 업이란 버릇이고, 장이란 쌓이는 창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업장은 버릇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다 같이 공감이 되는 것처럼 업장도 버릇의 쌓임입니다.

방생이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며 자신의 생명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목숨처럼 다른 목숨도 귀

정각으로 살고 있나 착각으로 살고 있나?

자신 먼저 방생하는 지혜부터 갖춰야해

한 것, 그러나 실천의 문제에서 불교는 매우 지극한 깨우침을 줍니다. 남의 생명을 한 번 살려주는 그 순간의 자비정신이 그 순간의 공덕이 함께 쌓여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생은 나와 남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업장소멸이란 나쁜 버릇을 선한 습관, 좋은 버릇으로 고치려는 서원의 실천을 다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불자들은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하나로 돌아갑니다. 만법귀일(萬法歸一)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 한산도 바다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방생하는 그 마음이 지극하면 5대양의 모든 물고기를 다 살려내는 서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불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물고기를 살리는 그 순간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재수, 명, 등등을 어디에 쌓아 두었다가 중생들이 원할 때 주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불자들의 잘 못된 모습과 버릇, 욕심이 지닌 것을 착하고 예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큰 스승이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춘 절대적인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자비하신 스승이십니다.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우쳐주시는 부처님이십니다. 해상법당에서 하는 기도도 본래 깨끗한 본마음을 맑게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참다운 자기방생은 스스로 불성을 밝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자들이와 모든 이의 생일에는 부모님께 방생하세요! 어머니는 생사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난 생일을 어떻게 보내야 옳을까요?”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생일 하루만이라도 고기를 안 먹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 부모님이 자신을 태어나게 해 주신 날 하루라도 진정으로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함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따뜻한 마음으로 큰 절 한번 하며 손을 잡아드리고, 어머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결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어머니께 하는 모습을 본 내 자녀들이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대를 이어서 행복한 삶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생일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출생되는 과정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일날 절에 가서 “부처님 우리 부모님 극락세계로 인도해주시고 저희들도 부처님 말씀 잘 듣고 배우서 올 바른 불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발원하고 배워서 올 바른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아름답고, 평소 스스로 보지 못한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꼭 해보세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유익한 만큼 해로운 면도 있으니,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은 크게 나누면 좋은 말, 예쁜 말, 덜 좋은 말, 덜 예쁜 말(나쁜 말)을 구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는 해서는 안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많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는 언뜻 아무 뜻 없이 내 벨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란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애곡(哀哭)을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잘 안될 때 ‘아이고’ 하면 그만큼 슬프다는 뜻이지요. 그런 말을 일상에서 자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말의 기운이 몸매 스며들고 마음에 젖어들어 자꾸만 아이고 소리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자꾸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살면 정말 슬프고 비통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팔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팔자타령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팔자타령만 안 해도 그 팔자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팔자라는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빠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뉘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 :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 (10mm) 모주 1개 (12mm), 줄(실색), 코핀1개, 팬던트, 아부시개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 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아부시개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앞쪽에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TIP 끝부분까지 빼낸다면 3회 정도 힘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염주와 모주 사이를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TIP 이때 팬던트와 마강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 정도 남겨줍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기법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회 힘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지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저서 손으로 기법 매듭을 눌러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뚝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말로 불행을 자초하지 말라



매 순간의 행동이 업장으로 쌓여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말 한마디에 지옥·극락 오가는 차이가 있는 줄 알아야 참불자

자작자수의 인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타고난 팔자를 망가뜨리지만 알아도 불행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팔자타령을 하고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파배기처럼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으로 살고 업력으로 살고 덕력으로 살고 복력으로 사는 겁니다. 능력은 현생에서 배운 기술을 발휘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업력은 전생부터 지어온 업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덕력은 인품을 닦아 형성된 덕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복력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쌓아온 공덕의 힘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력입니다. 예부터 '능력 있는 장수는 덕 있는 정수를 이길 수 없고, 덕 있는 정수라도 복 있는 정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복을 다 쓰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을 행위를 자주 해야 합니다. 복은 지으면서 쓰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을 까먹고 팔자를 망가뜨리는 말이 입에서 지나치게 자주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겠다'는 말도 그 심독한 뜻은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씁니다. 결핍하면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등등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으면, 왜 살고 있습니까?

'미치겠다'는 말도 습관처럼 쓰고 '환장한다'는 말도 습관처럼 씁니다. 미치는 것은 정신줄을 놓치는 것이고 환장하는 것은 창자가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겁니까? 자주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하면서 살면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여 입원하고 수술할 일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주문을 거는 것이니까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남을 낮추고 멸시하는 말, 나를 타락시키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입만 조심해도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성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가는 말 또는 말이고 와야 사람 사이도 좋은 것입니다. 결국, 말 한마디에도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구경>의 맨 처음이 '정구업진언'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교를 바로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 했듯이 업은 버릇을 말합니다. 버릇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이치만이라도 부디 명심하여 좋은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하는 버릇, 말하는 버릇, 생각하는 버릇 등등 모든 것이 버릇들이기 나름입니다.

석천 스님은 "모두 정각(正覺)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착각(錯覺)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의 일상은 거의가 착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나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팔 나는' 단순한 이치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부처를 구하고 보살을 들먹이며 잘난 체 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 보며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섬들을 예뻐하듯 물어봐왔다.



임연태 (시인 본지는설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자기성찰

제주도를 섬의 특성상 삼다도(三多島)라고도 한다. 돌과 바람 그리고 해녀가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서(島嶼)란 크고 작은 섬을 이르는 말이다. 도는 큰 섬 도이고, 서는 작은 섬 서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많은 제주 사람들은 바람의 재해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였다. 그 하나가 강담을 쌓는 일이었다. 흙을 쓰지 않고 돌로만 담을 쌓는 것이었다. 그렇게 담을 쌓는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강담은 견고성에서 부실하기 그지없다고도 생각했다.

구멍이 송송 뚫린 현무암으로 큼직한 구멍이 난 담을 쌓기 때문이다. 누대의 선조들은 견고하게 쌓았다고 흙을 넣어 다지며 구멍이 나지 않게 쌓았겠으나 생각과는 달리 정성이 빗나가기 마련이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를 거듭한 나머지 터득한 지혜가 바람이 지나 갈 통로를 마련해 두는 작업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담장이 무너지는 애석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수행자의 경우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반복 또 반복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한 나머지 저 위 없는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다. 이는 부단한 성찰의 결과이다. 성찰(省察)은 범어로 nirīkshaṇa 라고 한다. 동사는 nirīksh이다. '보다', '음시하다', '지각하다'는 말이다. 주변을 눈여겨보면 자신을 반조해 보지 못하고 남의 장단에 놀아나는 사람이 허다하다.

월(越)나라의 미녀 서시(西施)가 음식을 잘못 먹어 위경련이 일어났다. 그 통증이란 가히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서시는 참다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그때 어떤 처녀가 미인은 찌푸리는 것이라고 여겨 자기도 찌푸리기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을 이를 때 쓰는 말이 효빈(效顰)이란 고사가 나왔다.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의 삶의 단면을 지적하고 있다.

<회남자> 인간훈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갈 때의 일이다. 벌레 한 마리가 장공이 타고 가는 수레 바퀴를 들이치려고 하였다. 공은 수레를 모는 마부에게 물었다.

'저게 무슨 벌레인가'
'저 놈이 이른바 사마귀란 놈입니다. 저 놈은 원래 앞으로 나아 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 날 줄은 모르며, 제 힘도 헤아리지 않고 상대를 엮신 여기는 놈입니다.'

'그래, 그 놈이 만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천하의 용사가 될 것이다.' 하며 공은 수레를 돌려 사마귀를 피해 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사를 당랑거철(螳螂拒輦)이라고 알고 있다. 사마귀에서 배울 점이 있다. 아무튼 타고난 성질은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뻥 안 될 줄 알면서 인간의 의기를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어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던가 하는 점이다.

사향(麝香)노루는 몸길이가 1m이고 어깨 높이는 50cm 가량이 된다. 뿔이 없는 동물로 서식지는 숲속이다.

공노루라고도 하고 사록(麝鹿)이라고도 한다. 이 짐승의 수컷의 배꼽 근처에는 향낭이 있다. 향낭에서 매혹적인 향이 나는 데, 정작 노루는 냄새의 근원이 어디지를 몰라 온 산을 헤매고 다닌다고 한다.

인간도 사향노루와 유사한 일면을 볼 수 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쉬고 조용히 자기성찰을 하게 되면 그 만족의 근원은 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도심 속에 잘 가꾸어진 저택의 정원을 보게 된다. 몇 평 남짓한 잔디 밭,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심어 놓은 정성이 묻어나는 소나무 몇 그루로 단장이 되어 있는 것이 정형화된 도심의 정원이다.

반면에 저택은 아니지만 아니 공색해 보이는 주거 공간에 살면서도 광대무변한 숲과 계곡을 정원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두 모습을 보게 된다.

행복이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는 것을 행복은 소유와 비례하지 않는다. 행복의 기준은 소유의 많고 적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온은 장마 끝에 내리거나 나온 달팽이의 촉수마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여백이나 공간이란 얼핏 생각하면 손실 부분이라고 간주해 버리기 쉽다. 그러나 여백이 없는 동양화란 상상하기 어렵다. 동양화의 매력은 여백처리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이 세상에 공간 없이 뭉개져 가득 채워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설치물들은 조금도 지탱하지 못하고 이내 소멸이나 파멸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제주의 강담을 보고 있노라면 여백의 활용과 공간의 묘미가 절묘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 마음의 순기능과 역기능도 흡사하다. 마음을 비울 때 공간 활용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마음 구석구석에 뭉개져 채우려하면 할수록 자신을 감당할 길이 막연해진다.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살펴보자. 비우는 연습을 했는가 아니면 채우는 연습을 했는가. 정작 인간이 낭비해야 할 것은 소유욕이다. 소유욕은 다른 재앙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순창 왕실 고추장

인생이십니까? 4대 전통의 손맛을 이어받은 제조기능인 김경순입니다.

저희 왕실고추장은 순창의 자연과 4대 전통의 손맛, 그리고 재래식 전통방식이 어우러져 장인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왕실고추장은 여러분의 식탁에 민족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대째 내려오는 장인의 명예와 왕실고추장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의 입맛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전통왕실고추장 제조기능인 김경순 올림

김경순 평인의 모듬 장아찌 1kg 33,000원	김경순 평인의 오이 장아찌 1kg 22,000원	김경순 평인의 배설 장아찌 1kg 44,000원	김경순 평인의 굴비 장아찌 1kg 140,000원
김경순 평인의 마늘장아찌 1kg 22,000원	김경순 평인의 도라지 장아찌 1kg 33,000원	김경순 평인의 김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평인의 참외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평인의 마늘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평인의 고들배기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평인의 무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평인의 깻잎 장아찌 1kg 27,500원

구입문의 : 왕실고추장 02)879-2007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 현공풍수 지리학
- 양궁송 삼합수법
- 황제택경 개론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쫓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37,000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